

경관으로 보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유적*

황 기 원**

- I. 서론
- II. 반구대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가?
- III. 반구대를 문화경관으로 볼 수 있는가?
- IV. 결론: 반구대의 문화경관적 해석과 활용

I. 서론

1. 상황 인식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문화유산적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보존과 활용의 해법에는 적지 않은 이견이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현재 국보 285호로 지정된 유형문화재이다.¹ 그러나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명시적 의사

* 본 글은 2006년 9월 16일 '반구대 문화유적보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임세권, 『한국의 암각화』(대원사, 1999); 『세계유산 등재신청 작성 매뉴얼』(문화재청, 2005); 『세계유산협약 이행지침(국역)』(문화재청, 2005); 『한국역사문화경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문화관광부, 2005); <http://whc.unesco.org/pg.cfm>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사)ICOMOS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주요 이슈는 접근 도로(주차장 포함)의 확장 및 개수 여부, 전 시관의 건립 위치 및 형태로 압축되어 있었으나, 최근 도로가 확장, 개수되어 이슈의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² 그리고 사연담의 담수에 의한 장기간 침수(오염수) 및 단기간 노출로 인한 악영향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³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활용)의 정도 차이,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의 차이로 압축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반구대의 가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느냐로 귀결된다.

2. 논의 방향

본고의 주제는 '경관'으로 보는 반구대 암각화 유적이다. 그러나 현재 반구대는 기념물-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관으로서 인지, 평가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려고 한다.

반구대를 경관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전에 먼저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⁴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경관'은 어느 평범한 경관이 아니라 세계유산의 한 유형으로서의 '문화경관'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반구대를 이에 대입하여 등재 가능성 내지 적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반구대를 세계

¹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본 문화유산의 정식 명칭은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이고, 분류는 '유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유물'이라는 용어는 법제상 근거가 없으며,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로 본다면 '유형문화재'이다. 그러나 본 심포지엄의 제목은 이를 '유적'이라고 하며, 이는 반구대를 기념물의 일종인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유산제도에서는 기념물(monument)과 유적(site)은 별개로 분류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² 언양-경주간 35번 국도는 고속화도로 수준으로 확장되었으며, 이 도로에서 반구대로 진입하는 입구는 현재 KTX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임시도로가 고속도로, KTX 노선 위를 지나 고개를 넘도록 개설되어 있다. 주차장은 고개를 넘어서면 곧 나타나며, 대형버스 6대, 승용차 20대 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주차장에서 반구서원까지 포장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차선은 그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폭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좁은 보도가 하천 쪽에 병설되어 있다. 반구서원을 지나면 나타나는 마을 입구의 삼각형 땅에 차량이 10대 정도 주차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이 곧 개설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반구대 방향으로는 승용차 진입이 제한되어 있으나, 안쪽 음식점까지 차량이 통행, 주차하고 있다. 음식점 앞에서는 보행교-대숲을 지나 반구대까지 보행으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구대 전면에 해설사의 서비스시설(소형건물, 해설용 벤치, 망원경 등)이 신설되어 있다.

³ 이밖에도 통제가 잘 안되는 탁본, 집축 등 반구대 암각화 자체에 미치는 악영향의 문제가 보고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설사의 활동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보인다.

⁴ '반구대'는 그 자체에 국한하기도 하고, 반구대는 물론이고 천전리 암각화를 포용하는 하천 연변의 적정한 구간, 나아가서 사연담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반구대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유산의 한 유형인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 유형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대의 구역을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반구대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반구대는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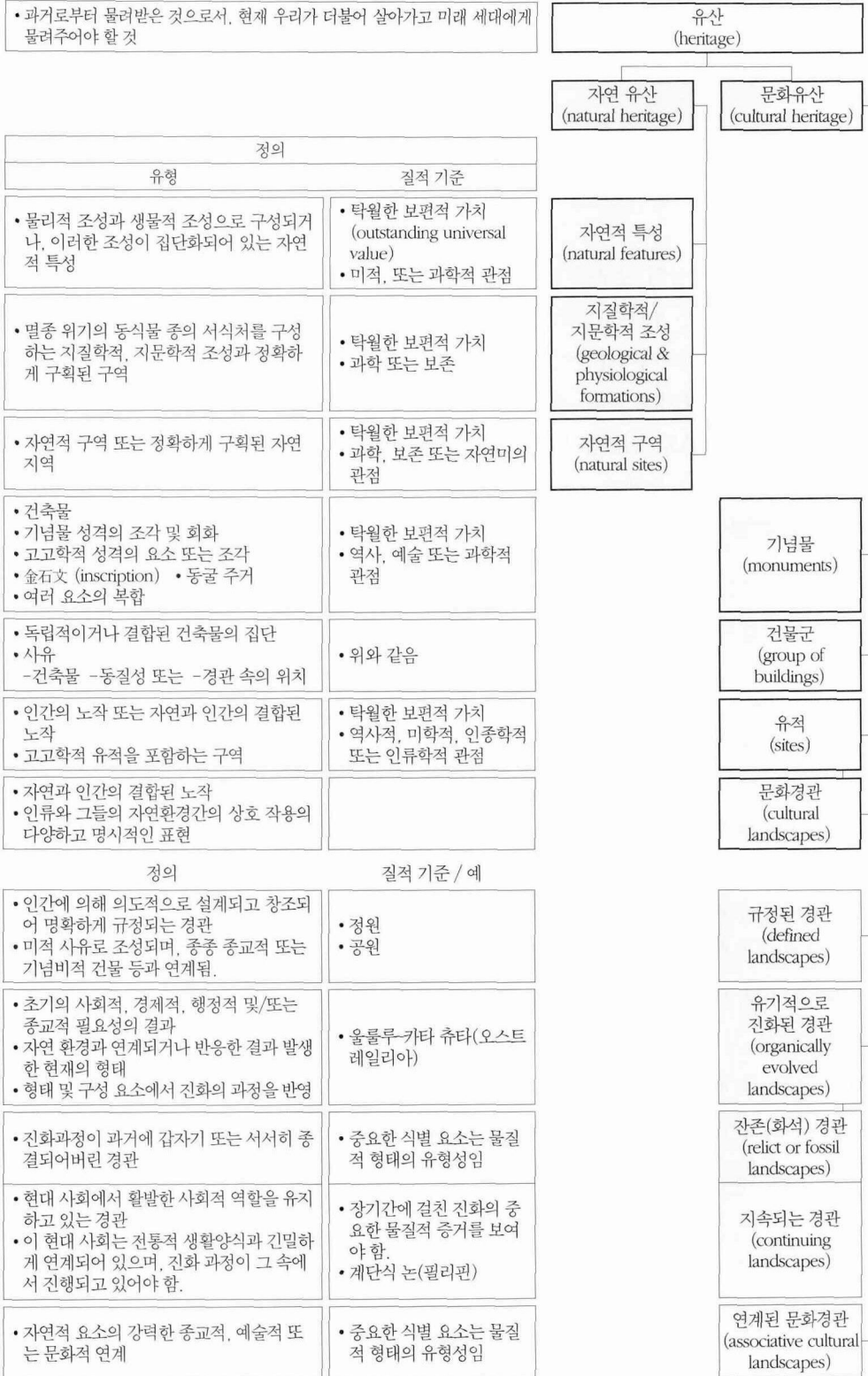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구대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과연 반구대는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가, 세계유산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잠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유산은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제정, 운영하고 있는 범세계적 제도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유산은 그것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기쁨과 그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동시에 안겨 준다.

1.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세계문화유산의 유형시스템은 [표-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정교하다. 개략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의 정의를 보면 '유산(heritage)'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 현재 살고 있으며 미래의 세대에게 전승하는 것(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이다. 이는 다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유산의 성격이 복합된 것은 따로 '혼합유산(mixed heritage)'이라고 구분된다.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을 따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종류와 그 기준을 기술하는 것으로써 포괄적 정의를 대신하고 있다. 종류로는 기념물(monument), 건물 군집(group of buildings), 유적(sites)으로 크게 나누며 질적 기준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로 그 관점은 역사, 예술, 과학, 미학, 인종학 내지 인류학 등을 들고 있다. 문화경관은 유적의 일종으로 분류하되 독립적 중요성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 1 세계유산의 체계



2.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한 조건

먼저,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유형에 부합하여야 한다.⁵ 반구대는 현재 국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급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 등재된 다른 나라의 암각화들처럼 세계유산의 유형에서 부합하는 것은 기념물(monument)이다. 그래서 유형상으로는 국내체제와 국제체제의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준다.

두 번째 조건으로서, 반구대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OUV는 세계유산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면서 가장 난해한 기준으로서, 유네스코는 지속적으로 이 가치의 조작적 정의 및 적용 방식을 연구, 보급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탁월성(outstandingness)'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비교할 것이 없이 뛰어나야 한다는 품질조건이다. 따라서 반구대 자체의 연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반구대와 유사한 유산과 비교, 연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그 결과로 절대적, 상대적 탁월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탁월함이 가장 좋으나, 어느 한 국면에서 탁월하다는 것도 가능하다. 이 비교 연구는 비록 세계유산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학술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원초적이고도 시급한 과제이다.⁶ '보편성(universality)'은 세 차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즉, 전 세계(공간)의 모든 사람(인간)들이 영속적으로(시간) 그 탁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논하는 '가치(value)'는 사물 그 자체에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사물에서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worth)이다. 바로 이 점이 어떤 유산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stakeholders)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이 되며, 반구대도 예외가 아니다.

이 OUV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이 있으며, 10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면 인정받는다.⁷ 반구대에 적용 가능한 기준으

⁵ 유형에서 발생하는 착각의 대표적 사례는 해인사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대장경판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인 장경판전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경판이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형식으로 충분히 보호,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계유산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⁶ 각주 8에 제시된 것들이 이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사한 사례들이다.

⁷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

(i) 사람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정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로는, “사람의 천재성이 만들어 낸 걸작을 대표한다”는 기준 1과,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 3일 것으로 보인다.⁸ 그러나 이 충족 여부는 단순히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학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으로서, 반구대가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⁹ 진정성(authenticity)은 비단 세계유산뿐 아니라 모든 문화재(유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임은 주지하는 바인데, 반구대 자체의 자연적 변형(침수 피해)이나 인위적 훼손(접촉, 오염 등)의 정도가 도를 넘치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기타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등을 준거로 한다. 완전성(integrity)은 국내 문화재에는 그다지 강력하게 적용되지 않으나,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조건이다.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 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 및 본연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하자면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즉 당해 유산이,

a)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b) 당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 문화(복수의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 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사람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이 탁월한 사례이어야 한다.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viii) 생명의 기록,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 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해야 한다.

⁸ Altamira 동굴(기준 1, 3: 스페인), Lascaux 장식동굴군(기준 1, 3: 스페인), Tandrart Acacus 암벽화(기준 3: 리비아), Serra da Capivara 국립공원의 바위그림(기준 3: 브라질), Nasca의 지상그림(기준 1, 3, 4: 페루), Sierra de San Franciscop의 바위그림(기준 1, 3: 멕시코), Alta의 바위그림(기준 3: 노르웨이), Valcamonica의 바위그림(기준 3, 6: 이태리)의 전례를 참고하라.

⁹ UNESCO 세계유산협약 이행지침에 따르면, “어떤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의 요건을 역시 충족시켜야 하며, 당해 유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대표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c) 개발 및 또는 방치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끼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반구대 일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안 이슈는 바로 이 진정성은 물론이고 특히 완전성과 직결된다.

네 번째 조건은, 반구대의 현재 보존상태가 적절한지, 취약한지, 그리고 그 보존 대책은 충분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이 기준에 비추어볼 때, 반구대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첫째로 반구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발압력, 환경적 압력, 자연 재해, 관광 압력 등을 확인하고, 그것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법률과 제도의 구비, 담당 행정 조직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 항목이다.

3. 현 수준에서의 잠정적 판단

전문 학자들의 연구와 견해에 따르면, 반구대는 세계유산으로서 유형에 적합하고 OUV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이나 저서가 지금 보다 더 많이 산출되어야 하는 등, OUV와 진정성 등을 학술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풍성해져야 한다.

현재 반구대의 진정성과 완전성은 점차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주변 상황의 변화와 이해 당사자의 갈등 등에 기인하여 보존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보존 상태가 불량하고 보존 대책이 미비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구대는 세계유산으로서 필요 조건과 충분조건 모두 일부만 충족하는 수준이다. 만약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의향이 있으면, 적어도 5-10년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작업이 필요하다.¹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고 해서 당장의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굳이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관광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 지역사회 개발 효과와 같은 실익 이외에, 무형의 이익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선사시대로부터 시작한 장구한 역사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일천한 역사와 취약한 문화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

¹⁰ 현재 등재를 추진 중인 <조선 왕릉>의 경우, 2004년에 착수하여 2009년에 가서야 비로소 심의 대상이 된다. 일본 등 문화유산 선진국은 대개 10년 정도를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어, 울산이 장차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 정착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도 경청할 만한 지적일 것이다.

III. 반구대를 문화경관으로 볼 수 있는가?

1. 반구대의 보존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반구대는 국내 문화재법제로는 국보급 유형문화재(조각)의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세계유산체계로는 '기념적 성격의 조각'인 기념물에 속한다. 얼핏 보면, 양자 모두 조각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나, 국내 체계로는 유형문화재이고, 국제 체계로는 기념물이라서 사뭇 다르다. 이 사실은 단순한 개념과 체계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본질적 차이를 암시한다. 공간 규모로 볼 때, 유형문화재는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국제적으로는 완충구역, buffer zone)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호구역의 넓이나 경계 등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반구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기념물이라면 유형문화재보다는 그 보호구역도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유적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범역 안에 복수의 중요한 사물을 포용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도 상대적으로 더 넓게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당해 유산의 전체성을 확보하는 데에 매우 유익하다.

반구대의 경우는 반구대 암각화 자체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공룡 발자국 화석 등 대곡천 유역을 함께 다루어야 함은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 유역을 어느 형식으로 하느냐이다.

1) "산재한 각각의 문화재와 각 문화재에 설정된 소극적이고 개별적 보호물 및 보호구역"이라는 현행 형식으로는 세계유산은 커녕 국내 문화재로서도 제대로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도 그렇고 천전리 각석도 그러한 상황이다.

2) "산재한 문화재를 모두 아우르는 형식"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요해진다. 그간 시민단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해 왔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성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그래서 좀 더 적극적 형식은 위의 2)를 택하되, 단순한 보호구역의 확대보다는 다른 형식을 도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발표를 요청받은 '문화경관'이다.

2. 세계문화유산의 일종인 문화경관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은 경관의 특수한 상황이다. 즉 사람의 뜻과 힘에 의해 자연경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가 보존, 진행, 잔존하고 있는 경관이다. 그런데 문화와 경관 두 개념이 매우 다의적이므로, 여기에서는 문화경관 자체에 대한 깊은 논의를 생략하고, 세계유산제도를 중심으로 문화경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화경관’은 세계문화유산의 한 유형이다. 문화경관은 유적의 일종으로 분류하되, 독립적 중요성을 가진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2년 제1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문화경관을 세계문화유산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국제법적 수단을 마련하였다. 세계유산의 분야에서 문화경관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세계유산을 오로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만 구분하기보다는, “인간이 생활을 통하여 관계하게 되는 인문적·자연적 요소의 총체인 경관”을 유산의 개념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자세가 분명하게 잡힌 데에 있다. 특히 문화유산은 주로 인류가 구축해 온 장려한 기념적 건조물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유산은 주로 인간의 관리, 또는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생자연에 치중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으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자원을 세계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원은 일반적으로 당해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 법제 및 정책의 대상이 아니고 각종 개발 과정, 또는 자연 과정에서 쉽게 소멸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변형되기 쉽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1995년에 필리핀 코르데일라의 다락논(terrace field)이 세계 최초의 문화경관으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개소가 등록되었다. 이후 특히 유럽의 농업경관이 문화경관의 형식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것들은 지중해에 면한 급경사면에 계단식으로 조성된 포도밭, 감귤밭, 사주, 간척지, 습지 등에 조성된 농경지, 큰 강(라인강 등) 연안의 농경지 등이다. 이러한 문화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전제로 한 독특한 토지이용형태를 보여 주는 유산으로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농림어업 방법에 따라 문화경관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미래의 확실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그래서 매우 취약한 대상이기도 하다.

3. 문화경관의 정의

다음은 유네스코가 내리고 있는 '문화경관'의 정의들이다.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의 결합된 勞作(combined works of nature and of man)'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과 인간을 공히 강조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를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여 또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여 무언가 이루어낸 것이라는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경관'이라는 용어는 "인류와 그들의 자연환경 간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에 대한 다양한 표현(The term "cultural landscape" embraces a diversity of manifestations of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kind and its natural environment)"을 포괄한다. 문화경관은 인간 사회와 정주가 장기간 진화한 것을 실증하는 것으로서, 그 진화는 그 사람들이 처한 자연환경에 의해 제시되는 물리적 제약 및 기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힘(강제력)—이 힘은 외적이기도 하고 내적이기도 하다—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다.








문화경관을 선정할 때에 적용되는 근거는 1) 탁월한 보편적 가치, 2) 분명하게 구획된 지리-물리적 지역의 관점에서 따진 대표성, 3) 그러한 지역의 중요하고 분명한 문화적 요소를 묘사하는 그것들의 능력이다. 문화경관은 그것이 처한 자연환경의 특징과 제약 및 자연에 대한 특별한 정신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종종 지속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특별한 기술을 반영한다.

4. 문화경관의 세 유형

가장 선별하기 쉬운 것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설계, 조성한 경관으로서 명확히 표시된 경관(defined landscapes)"이다. 여기에는 종교나 기타 기념성의 건조물 및 종합 축조물과 자주(항상은 아님) 연관되는 심미적 이유에 기인해 조성한 정원과 공원경관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s)"이다. 이는 초기의 사회, 경제, 행정 및 또는 종교적 필요에 의해 발달되었으며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및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현재의 형태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은 경관은 형태 및 구성인자의 진화과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경관은 다음과 같이 2개의 하위 유형으로 나뉜다. '유물(또는 화석)형 경관(relict or fossil landscapes)'은 돌연히 또는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과거의 어느 특정 시점에 이르러 진화과정이 종결된 유형을 가리킨다. 폼페이 같은 도시가 이런 유형에 속할 수 있다. '지속형 경관(continuing landscapes)'은 전통적 생활방식과

표 2 벤치마킹 대상 세계문화유산

명칭	등록연도	국가	특징	기준						비고
				i	ii	iii	iv	v	vi	
1 Hallstatt-Dachstein Salzkammergut Cultural Landscape	1997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시대부터 소금광산 • 뛰어난 자연경관과 어울린 장구한 문화활동 (소금광산) • 부의 창출과 도시건축 							
2 The Wachau Cultural Landscape	2000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크시와 크렘스시 사이를 양안에 둔 계곡 사이를 흐르는 다뉴브 강변의 문화경관 (ii) • 뛰어난 건축(수도원, 성채, 폐허), 정주환경, 농업(포도) (iv) • 시각적 질 							
3 Loire Valley between Sully-sur-Loire and Chalonnes	2000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ire Valley의 건축 유산(역사마을, 성채)의 질이 탁월함. -i • 2천 년 간 인간적 가치의 교류와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 조화롭게 발전한 상호작용을 증명하는 중요 하천을 따라 형성된 탁월한 문화경관임. -ii • 서유럽의 사고와 디자인에 관한 르네상스와 계몽시대의 이상을 예외적 수준으로 표현하는 많은 문화적 기념물 							
4 Upper Middle Rhine Valley	2002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 년 이상 중부 라인강 계곡은 유럽의 가장 중요한 교통로로서 지중해 지역과 북부 유럽의 문화 교류를 촉진함. • 지형 및 지질적 환경과 인간의 개입에 의해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함(집락, 교통기반시설, 토지이용 등). • 연안 계곡의 급사면의 토지이용이 중요한 경관 형성 요소임. 							
5 Cultural Landscape and Archaeological Remains of the Bamiyan Valley	2003	아프가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레반정권에 의해 파괴된 문화유산 • 바미얀 계곡에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교 미술에서 간다라파를 탁월하게 대표하는 불상 및 동굴예술임. • 비단길의 불교중심지로서, 인도, 그리스, 로마, 사사니안, 이슬람 등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잘 남아 있음. • 중요한 문화경관임. 							
6 Matobo Hills	2003	짐바브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에서 암석예술이 가장 많이 집적된 유적으로서, 석기시대와 이후 농경문화의 도래를 잘 보여줌. • 짐바브웨의 상당부분을 덮는 화강암판 위로 돌출한 바위 지형의 융합을 보여줌. • 현재에도 이곳을 사당과 성소로 활용하고 있음. 							
7 Rock Shelters of Bhimbetka	2003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인프도 고원지대의 남단부의 빈디안 산맥의 기슭에 있음. • 밀림 속에 돌출한 거대한 사람의 노두 안에 자연적으로 된 쉼터 5개소가 있으며, 신석기시대부터 유사시대에 이르는 회화를 보존하고 있음. • 주변 21개 마을 주민의 문화적 전통은 암석화에 표현된 것과 대단히 유사함.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진화과정 이 여전히 진행 중인 유형을 지칭한다. 동시에 이러한 경관은 오랫동안 진행된 진화의 면모 를 보여주는 중대한 물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대체로 농림수산업 등 산업과 관련된 경관 이며, 계단식 논(필리핀)이 좋은 예이다.

세 번째 유형은 “연상적 문화 경관(associative cultural landscapes)”이다. 이러한 경관을 ‘세계유산목록’으로 등재할 때에는 자칫 무의미하거나 아예 전무할 수 있는 문화적 속성의 물질적 증거보다는 자연요소가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종교, 예술, 또는 문화적 연상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영산(sacred mountain, 靈山)이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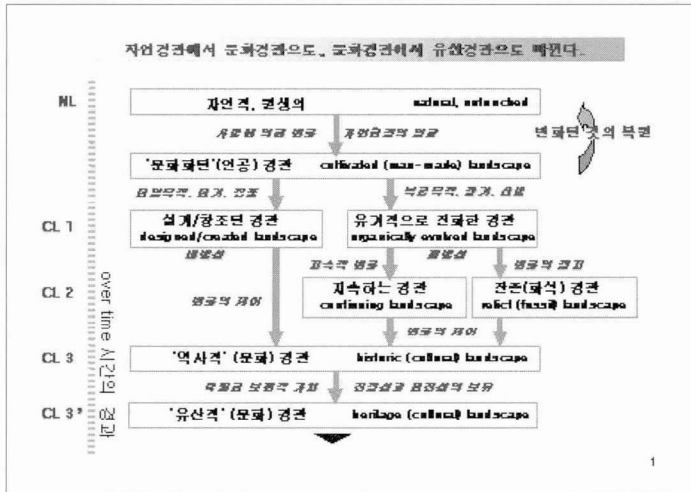
5. 벤치마킹할 수 있는 문화경관

[표-2]는 반구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문화경관으로서,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인들의 문화적 소산과 주어진 자연을 지혜롭게 조화시 키면서 잘 보존하다가 후세에게 물려준다는 세계유산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사례이다. 스케일은 다르지만, 하천과 그 연변의 문화유산이 어우러져서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사례를 주목하여야 한다.

6. 유네스코 ‘문화경관’ 개념의 동태적 해석

앞에서 설명한 유네스코의 ‘문화경관’ 개념은 정태적으로서, 어느 시점의 단면만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모두 부단히 변화할 뿐 아니라, 그 변화를 사람이 의도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문화경관의 동태적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 1]은 유네 스코의 개념과 일반 학술적 개념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자연경관이 문화경관을 거쳐 유산경관으로 전환하는 동태적 과정을 보여준다.

문화경관의 개념을 형성과 변화 과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전개하면 좀 더 쉽게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시적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어느 한 자연경관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문화의 개입에 의해 문화경관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발상이다. 이는 유네스코 개념이 자연의 노작과 인간의 노작의 결합이라고 하여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명시 하고 있지만, 그 개념에서는 자연에 관한 고찰이 없고, 자연을 바탕으로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동태적, 통시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도 1 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경관 형성 과정

1) 문화경관의 시작은 자연경관이다(NL).

2) 그래서 문화경관은 기본적으로 '인공경관(man-altered landscape)'이다(CL 1). 즉 사람의 손질과 발길에 의해 변화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은 '문화화된 경관(cultured landscape)'이다. 즉 자연경관—원생경관이나 천연경관 수준—이 인류에게만 고유한 문화에 의해 변형(개발, 파괴, 이전 등)된 상태의 경관이다.

3) 문화화한 경관(인공경관)은 '설계/창조된 경관'이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후자는 또 '지속하는 경관'이거나 '잔존(화석) 경관'이기도 하다. 이 개념들은 바로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문화경관의 유형이기도 하다.

4) 그런데 이 인공경관으로서의 문화경관은 '생활경관(life landscape)'이다. 문화라는 것은 본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룩하는 생활방식이라고 하였는데, 그 생활양식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숨어 있는 경관이 문화경관이라는 것이다. 살아가기 위해서 짓고 닦은 집, 마을, 길, 농경지 등이 이런 것에 해당한다.

5) 그래서 생활경관으로서의 문화경관은 대체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형성하고 또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평범한 경관(ordinary landscape)'이다. 여기에서 문화라는 것이 인류의 뛰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이룩하는 양식으로 보므로 그것이 나타나거나 숨어 있는 문화경관은 당연히 평범한 경관인 것이다. 숫자로 본다면 평범한 경관이 압도적으로 많다.¹¹ 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경관 형성 과정 생활경관으로서의 문화경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중에는 '비범한 경관(extraordinary landscape)'도

있다. 사람들의 생활 중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생활(종교, 의식, 행사 등)도 있고, 특별한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있으니, 이러한 비범한 생활이 형성되고 또 그 비범한 생활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이 이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설계가가 설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정성스레 지은 집(예컨대 창덕궁, 석굴암 등), 다리(금문교 등), 탑(석가탑, 에펠탑 등)은 비범한 경관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제도의 문화경관 중에서 '분명하게 규정된 경관'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과는 달리 대체로 목적이 단일하고 의도적으로 계획, 설계되었으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들이다. 유네스코가 들고 있는 예는 정원이나 공원이다.

6) 문화경관은 '역사경관(historic landscape)'을 형성할 수 있다(CL 3). 즉 한번 형성된 문화경관이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래의 상태를 잘 유지하거나, 원형을 지키면서도 슬기롭게 변화하게 되면, 이른바 역사경관이 된다. 이 역사경관은 '역사문화경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의 생활양식인 문화와 사람의 생활의 기록인 역사는 둘 다 사람의 생활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고, 또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역사경관으로서의 문화경관은 '기록 경관(recorded landscape)'이다. 즉 경관에 과거의 삶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되어 후대에 전해진다는 점에서 문화경관은 역사경관이기도 한 것이다.¹²

7) 역사적 경관으로서의 문화경관 중에는 '유산적 경관(heritage landscape)'도 생겨난다. 즉 원형이 잘 보존되어 진정성과 완전성이 확보되고, 문화적 가치를 많이 지닌 희귀한 문화경관은 유산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게 된다. 대체로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규정되는 것들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뽑히고 뽑힌 것이 세계유산으로서의 문화경관이다.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경관이 되는 것이다.

¹¹ 유네스코 제도의 문화경관 중에서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 경관은 대체로 각각 목적이 다르고 형식이 다양한 개별 프로젝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오래된 마을이나 도시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¹² 일반적으로 경관을 책에 비유하는데, 이 비유를 적용한다면 역사경관은 현장에 기록된 매우 훌륭한 역사책이다.

IV. 결론: 반구대의 문화경관적 해석과 활용

반구대 암각화 자체는 정의상 경관이 아니라, 경관을 이루는 한 요소, 즉 경물(景物, landscape element)이다. 그러나 주변 일대의 영역을 적절히 구획한다면 훌륭한 경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식의 경관은 반구대의 대안에서 바라볼 때, 반구대 암각화를 중심 경물로 하여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이다. 이런 차원의 경관은 현재 반구대 및 그 보호구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역을 천전리, 대곡리 및 사연댐 등으로 넓히면, 보다 다양한 경물을 포용한 문화경관이 성립한다. 선사시대 문화경관 겸 유산경관, 조선시대 문화경관 겸 유산경관, 그리고 현대의 산업경관(댐), 평범한 산림경관이 포함되는데, 이들 간의 형태적, 의미적 유연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구대 단독 또는 일대의 경물을 포용하는 영역을 설정하더라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경관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곡리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을 중심으로 선사시대의 유물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강화하여 '그림(figure)'으로 부각시키면서, 다른 경관은 이것들을 돋보이게 하는 바탕(ground)으로서 역할을 부여한다면 하나의 단위 유산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반구대 일대는 문화경관이고, 역사적 문화경관이지만, 현 상태에서는 세계유산적 가치는 미약하다. 그러므로 반구대 암각화 자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되 나머지 구역은 그 가치를 보완하는 유산들을 포용하고, 이 모든 요소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되 이를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관련 기준과 원리 및 기술을 준용하면 매우 유용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반구대 이슈의 제일은 이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보존, 관리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새로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보존과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안이므로 설령 세계유산 등재에 합의하지 않더라도(또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전시관 등)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1)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에 관심이 있고,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첫째로 반구대 암각화의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현재 잘 지키고 가치를 증진시켜 미래의 후손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므로, 지속 가능한 발전 그 자체라는 점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역사, 그 소산과 과정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자문자답에 귀결할 것이다.